



## 미 연준, 2011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6월 22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는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취약하다고 현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를 0~0.25%로 유지하기로 결정함.

- 미 연준은 3월과 4월에 비해 경제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가운데, 유가 상승, 일본의 지진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상반기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함.
- 또한 2010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2차 양적완화정책을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하나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투자함으로써 채권 보유잔고는 일정하게 유지할 방침임.
- 2차 양적완화정책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각종 경제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으나,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.

■ 연준은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월 전망치인 3.3%보다 0.4%p 낮은 2.9%로 하향조정하였으며, 2011년 4/4분기 실업률 전망은 8.4~8.7%에서 8.6~8.9%로 소폭 상향조정함.

- 연준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.5~4.2%에서 2.7~2.9%로 하향조정하였으며, 2013년 경제성장률은 3.5~4.3%에서 3.5~4.2%로 조정함.
- 연준의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에 앞서 6월 17일 골드만삭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%에서 2%로 1%p 하향조정하였으며, 같은 날 IMF도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.8%에서 2.5%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.
- 한편, 연준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으로 다우존스산업지수와 S&P500지수는 각각 0.66%, 0.65% 하락하였으며, 유로화 대비 달러화는 연준이 추가 양적완화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거래일 대비 0.4% 하락하며 강세를 나타냄.

(Wall Street Journal 등, 6/22)